

◎ 濟州島研究, 제 5 집, 1988. ◎

國際化時代의 濟州島 研究

—自然科學 分野—

李 仁 圭*

「濟州島 研究會」가 창립된지 10周年이 지난 오늘, 本 研究會가 이룩한 발전을 생각하면 새삼 가슴 뿌듯한 자랑스러움을 느낀다. 10年前的 그 出發은 지극히 미약한 것이었으나, 이제는 전국 규모의 學術大會를 4년째나 개최하게 되었고, 알찬 學術誌를 4輯까지 발간해서 學術團體로서의 기틀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成果는 무엇보다 먼저 역대 회장단을 비롯한 會員 모두의 努苦때문이나, 濟州新聞社의 전폭적인 지원과 玄梧學術財團의 희생적인 뒷받침 等, 이루 해야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協助와 努力, 그리고 愛情 위에 이룩된 것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10년이란 세월은 그러나 결코 짧은 것이 아니어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이와 같은 노력들이 학술활동을 위한 整地作業의 힘이 되었고, 그러한 內實을 바탕으로 하여 이미 濟州島 研究會는 國際的인 視野의 조명을 받게 되었다. 이제 本 研究會는 내일의 도약을 위하여 오늘 우리 자신을 再點檢하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때가 된 것 같다.

1. 自然科學에서 地域社會研究의 必要性

흔히, 自然科學은 人文·社會科學과는 달리 客觀的이고 보편타당한 知識

* 서울大學校 植物學科 教授

의 누적을 目標로 하여 발전하는 학문이라고 인식되어져서, 地域性이 강조되는 자연과학의 여러 분야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 영역에서 벗어나곤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테면, 數學을 바탕으로 한 物理學이나 化學은 보편성이 더욱 강조되는 分野여서 보다 科學的이라는 理解아래 더욱 學問的이라고 評價되지만, 生物學을 비롯한 地球科學, 特히 地域的인 主題를 가지고 다루어지는 여러 分野들은 記載的인 面이 보다 강조되는 그 학문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많은 젊은 科學徒들의 관심 밖으로 쫓겨나고 있는 것을 허다히 볼 수 있다.

近代科學의 발전의 역사로 볼 때 지극히 과학적인 후진성을 脫皮하지 못하는 우리 나라의 경우, 이와 같이 편향된 시각의 學問觀이 한층 두드러져서 수 많은 學問的인 死角의 未開拓地帶를 放置하게 되었고, 소위 첨단과학이라고 불리는 시대적 총아를 향하여 全人力이 줄달음치는 愚를 범하는 事態에까지 이르고 있다.

제주도 연구회가 깊어지고 있는 오늘의 이 使命은 우리 모두의 관심밖엔 내 몰려서 어쩌면 國家次元에서 까지도 팽개쳐져 있는 民族文化의 死角地帶를 의롭게 발굴하여 이를 가꾸고 꽃피워서 풍요로운 文化遺産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本 研究會는 그러한 학문적인 갈증을 느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되어진다. 그러므로 민속학을 중심으로 한 人文·社會科學의 同好人들이 모여 시작한 이 研究會에서 海洋環境이 논의되고, 山地 地形이 거론되며, 農水產 資源이 토의됨으로, 自然科學의 多樣한 分野들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이었던 것이다. 濟州島야말로 現代科學의 흐름을 가장 잘 具現할 수 있는, 脫領域을 통한 學問의 공동광장을 이룩하기에 가장 적합한 理想的인 곳이라고 斷言할 수 있다.

國際化時代를 맞은 濟州島 研究會가 무엇보다 먼저 수행하여야 할 과제는 이처럼 領域을 초월한 全 分野의 研究者들이 濟州島라는 共同的 廣場으로 集結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2. 濟州島 研究會 10年の 회고

자연과학은 그 학문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많은 경우 大衆的이지 못하다. 그러므로 各種 研究分野마다 非學問人의 참여는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제주도 연구회가 人文·社會科學分野를 中心해서 출범하게 된 것도 어찌면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自然科學分野의 학술 연구가 本 研究會에 本格的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1985년 이후부터였다. 그리하여 최근 3년간 本 學會誌에 수록된 自然科學分野의 研究論文 및 資料 등을 分類해 보면, 海洋環境分野 4편, 海洋資源分野 7편, 地形·地質分野 4편, 陸上植物分野 2편, 農業, 鳥類, 海女에 관한 研究가 각 1편씩으로 도합 20篇에 이른다.

이러한 結果는 一見 地域研究를 中心으로 할 때 다룰 수 있는 研究領域들의 大部分이 참여된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들 研究領域을 한번 더 細分하여 보면, 반드시 참여되어야 할 많은 분야들이 수 없이 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학문의 死角地帶가 시급히 보완되어 研究者들의 참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가장 큰 理由는 첫째로, 文獻 情報의 수집 때문이다. 本 研究會가 本格的인 學術活動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 작업의 하나인 國內의 문헌 정보의 수집은 關連分野의 研究者의 확보없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그리하여 제주도를 中心하여 脫領域의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앞서서 多樣한 分野의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제주도를 對象地로 한 자연과학의 여러 영역의 연구들이 分野에 따라서는 매우 풍부한 자료와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있지만, 이들을 발굴하여 응집된 힘으로 표출하기 위하여서는 연구자들이 다 함께 모여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망라되어야 할 이유는 본 연구회가 당면하고 있는 課題의 하나인 共同研究를 수행하기 위함이다. 地域社會를 對

象으로 한 연구의 강점은 學問의 全 分野를 망라하여 종합적인 학술조사를 가장 이상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잘 알다시피 제주도를 대상으로 한 綜合 學術調查는 1959년에 한 차례 이루어졌을뿐, 아직은 구체적인 展望이 없으며, 그나마 1959년의 학술조사는 報告書도 作成되지 못한 채 끝내고 말아 사실상 종합학술조사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은 實情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다양한 연구자들이 망라되어야 할 이유는 本 研究會가 국제적인 도약을 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이기 때문이다. 제주도 연구회의 人的 構成이 人文·社會科學分野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본 연구회가 이 분야를 中心으로 하여 출범하였고 자연과학 분야의 참여가 늦었던 까닭도 있겠으나, 아직은 研究者들에게 본 연구회의 존재가 잘 알려지지 않은 홍보적인 이유도 크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인식하며 제주도 연구회의 내일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3. 自然科學分野의 研究 課題

(1) 國內 研究者들의 발굴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회가 활성화되기 위하여서는 보다 많은 研究者들이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本 研究會가 발족한 10年前과는 달리 자연과학분야에서는 그 間 多様な 領域의 전문 연구자들이 多數 배출되고 있으며, 이들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제주도를 對象으로 한 연구에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와같은 연구자들을 본 연구회가 흡수하여 함께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는 本 研究會의 학술활동 프로그램이 더 多樣化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研究會가 수행한 주요 학술활동은 年 1회씩 개최되는 전국대회의 학술 발표회와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월례회 정도인데, 이 모든 것은 個人的인 研究活動의 結果를 발표하는 機會를 제공하는 것 뿐이지 研究에 참여하는 직접적인 기회는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本 研究會에 가입하

여 활동하고 싶은 매력은 반감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共同研究의 開發

위에서 언급된 연구자의 발굴은 궁극적으로 공동연구를 개발하여 연구활동에 직접 참여하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이미 本研究會의 設立趣旨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역사와 사회구조, 道民의 생활양식과 意識構造 등, 제주도에 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위하여, 關連專門分野, 전공자간의 정보교환의 활성화와 상호협력을 촉진시키고 이로써 地域研究의 표본으로서 제주도 연구의 진흥과 그 국제적인 연락을 도모한다는 基本精神의 具現은 현재 수행중인 여러 事業외에 당면 과제로 남아 있는 회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학술조사활동의 活性化를 통하여 가장 쉽게 성취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까지 한번도 제대로 이루어보지 못한 제주도 종합학술조사는 본 연구회가 주동하여 數個年 計劃의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반드시 광범하고 구체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3) 海外 研究者들과의 교류

이미 濟州島 研究會가 日本에서도 結成되어 제주도에 대한 학술적인 관심이 우리만의 것이 아닌 국제화시대를 맞이 하였으므로,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인접국가의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地域 中心의 研究를 함께 수행하고 情報를 交流하지 않을 수 없는 時點에 도달하였음을 實感한다.

이 경우,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일은 첫째, 제주도를 對象으로 한 국제 공동연구의 수행과, 둘째, 제주도와 유사한 國外 地域 研究의 成果들을 비교검토하는 共同研究의 수행이다. 이 모두가 국내 연구자가 국외 연구자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만큼 量과 質에서 갖추어져야 함은 물론이나, 전자의 경우 국내 연구자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연구를 수행하지 못할 때는, 분야에 따라서는 共同研究를 수행하지 않고 研究資料를 남겨 두어 내일을 기약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소 편협된 국수주의적인 견해가 될런지 모르지만, 지역 연구는 궁극적으로 그 지역의 당사자의 손에 의하여 적어도 주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와 같은 모든 과제를 포함하여 제주도 연구회가 보다 알차게 발전하기 위하여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지극히 常識的인 결론으로 귀결된다. 이를 위하여서는 本 研究會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會長團 以下 核心會員들이 일치 단결하여 本 研究會의 設立趣旨와 活動을 홍보하고, 財政的인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무거운 使命이 있음을 강조하는 바이다.